

# 주제별로 접근한 '일본 알기' 책들

한·일 역사갈등에서 풍속·생활·문화 등 다양한 시각 보여줘

일본 연구가 분야별로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확산되면서 80년대부터 꾸준히 출간돼온 일본책은 대개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주목한 경제현실론이거나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전해준 문화에 대한 상찬, 경제적 풍요에 가려진 일본의 정신적·문화적 빈곤에 초점을 맞춘 문화비교론이 주를 이루었다.

이미 일본론의 고전으로 자리잡은 《국화와 칼》, 《축소지향의 일본인》처럼 한 개념이나 이념형을 설정해 일본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는 책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출간된 책들은 일본문화에 대한 칭찬이나 의도적인 폄하를 지양하고, 한두 개념으로 일본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성급함도 경계한다. 되도록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일관계사·문화·풍속·산업 등 각론으로 학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한·일간의 영원한 갈등

각론으로 출간된 최근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문헌자료를 동원해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려 한다는 점이다. 전공교수들이 모여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정치·경제·사회 등 다각도로 연구한 두 권의 책, 《한국과 일본》(하영선 엮음, 나남출판),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현대사연구팀 엮음, 한길사)는 단연 손꼽힌다. 이 책들은 그간 출간된 일본 관련서를 지켜보며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말한 '극복 대상으로서 일본을 해부한 전문기획서'의 요구에 답하고 있어 반갑다. 특히 이 책들은 일제하 우리나라 식민통치의 양상을 더함도 덜함도 없이 정치하게 그려내 일본 스스로 자신들이 행한 가혹한 식민정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한일관계의 역사를 기원전 3세기까지 끌어올려 그 후 지금까지의 한일관계를 꼼꼼한 주석으로 복원한 《반일, 그 새로운 시작》(이규배, 푸른숲)도 눈에 띄는 책이다. "막연한 비판의식으로 감성적인 논의를 되풀이하는 것은 자중지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전제한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이 원한으로 얽히게 된 역사의 뿌리를 캐는 데서 시작한다. 기원전 3세기 신공황후가 신탁한 한반도 침략계획

이 바로 그 뿌리다. 그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각종 문헌에는 한반도 점령야욕이 공공연하게 나타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의 일본관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송희경이 《노송당 일본행록(老松堂 日本行錄)》에서 '조선과 일본은/예로부터 사귀어 친하였고/더구나 지금은 한 집안이 되어서/사신이 탄 배 바닷물에 떴네/가나 머물거나 한 집안인데/이별을 어찌 대단하게 여길까'라고 읊었다. 이 임진왜란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상은 없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원수'로 바뀐다.

저자는 한일관계의 골이 여전한 것은 한일관계사 속에서 일본이 보여준 상습적인 책임회피와 의문스러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포로송환도 하지 않은 채 화친을 제의해 왔고, 패전 후 시데하라 키쥬로는 프랑스의 정치가 감베타의 말을 인용한다. "...우리 일본인들도 조선을 빼앗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그 땅을 회복할 때까지는 이를 화제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자는 일본인들은 아직도 한국을 '잃어버린 땅'으로 여기며 회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 일본의 독특한 생활문화도 소개

《젓가락 사이로 본 일본문화》(노성환, 교보문고)와 《일본의 성풍속》(프리드리히 S. 크라우스, 바리데기)은 일본의 생활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한·일문화 교류의 입장을 지양하고 일본문화의 독자성을 파악하려 했다"는 노성환씨는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일본문화학을 전공했다.

《젓가락 사이로...》는 저자의 일본경험이 바탕을 이루는데, 한국과 다른 일본의 독특한 생활문화에 민속학 및 문화인류학과 역사학적 방법을 적용해 기원과 그 변천과정을 살핀다. 예를 들면, 저자가 식사시간마다 한국과 일본의 식습관의 차이로 언쟁을 벌이다가 일본의 독특한 식문화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아주 옛날에는 일본도 숟가락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통해 육식을 금하는 불교나 찰기 많은 자포니카쌀 등이

일본알기의 본격탐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서점가엔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와 일본의 생활문화와 문화산업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캐들어간 책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계란형 얼굴에 직선의 코, 작고 활력 넘치는 입, 활 모양의 머리카락 등이 일본인의 이상적인 여성미로 그려졌다. (《일본의 성풍속》 중에서).



식문화를 조금씩 바꾸어 왔음을 밝힌다. 이러한 저자의 관심은 일본의 특징적 문화요소인 목욕습관, 양자사위제도, 설날풍습, 할복자살전통 등에 두루 미친다. 주로 한국과 비교해서 다른 점들을 주목하지만 서로 비교해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성풍속》(바리데기)은 유고슬라비아의 학자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독특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집필연대도 유럽인들이 식민지 건설에 한창 열을 올리던 1910년이다. 이 책을 쓴 프리드리히 S. 크라우스는 개인을 비롯한 민족의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내부적인 성질'이며, 그것은 '가족을 둘러싼 관례·풍습·권리 또는 신앙에 의해 규정된 부인의 지위'라고 말한다. 그 고찰의 전면에는 '성적인 활동'이 있다.

《고사기(古事記)》에 수록된 일본의 탄생은 '이자나기노미코토'라는 여신과 '이자나미노미코토'라는 남신의 성행위로 이루어진다. 몸 가운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곳'과 '지나치게 만들어진 곳'의 결합으로 묘사한 성행위는 창조와 완성의 의미다. 따라서 일본의 성풍속은 인도의 그것처럼 종교적이며 주술적이다. 성기숭배 등의 예를 통해 성풍속이 일본에서 종교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일본의 풍습을 신비화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

## 세계적인 만화산업국 일본 해부

지금은 경제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많이 잃었지만 일본의 만화산업만큼은 '저패니메이션'이라는 고유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세계

최강이다. 《저패니메이션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길벗)는 현재 세계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시장의 65% 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만화산업의 역사를 살핀다. 일본의 만화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기까지 만화산업의 역사와 환경을 살살이 살핀 책이다. 일본 게임기 2사가 국내 굴지의 반도체회사 3사의 수익을 능가하는 데서 보듯 애니메이션은 관련산업에까지 파급효과를 일으킨다.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된 일본산업에 대한 연구는 한일간의 역사연구나 문화비교에 치우쳐 있던 이제까지의 관련서에 새로운 시각을 보탠다.

여러차례에 걸친 일본정부 고위급의 망언, 강제연행 등 밝혀야 할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정신대 문제 등, 광복이 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일본에 아직 예민하다. 여러 형태의 일본관련서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 일색으로 잠깐의 카타르시스만을 제공하는 일본 관련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고려된 일본문화연구소의 조양욱 소장은 "일본 연구의 세분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시작일 뿐이라며 좀더 다양한 내용을 원했다. 과거 청산의 문제, 또 일본과 우리가 가진 공통된 뿌리와 구조적 조건, 문화적 유사함을 통해 우리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책도 필요하다. 물론 그 방향은 상대를 설득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정연하고 절제된' 내용으로 나아가야 한다.

— 이현주 기자